

# 살 빼는 약, 공부 잘하는 약! 제대로 알고 먹나요?



해(年)가 바뀌고 조직의 구성원들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몇 가지가 있다. 예뻐지고 싶은 여인의 마음, 공부 잘하고 싶은 학생의 마음, 그리고 멋진 몸을 원하는 남녀노소의 마음!



이주현  
대변인실

외모를 가꾸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운동 및 식이요법으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지만 조금 더 편하게, 빠르게 결과를 얻고 싶어 약물의 도움을 받곤 한다. 하지만 무분별한 약물사용으로 인한 불면, 신경과민, 정신이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 ‘살 빼는 약’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비만치료제는 ‘식욕억제제’와 지방분해효소를 억제시키는 약이 있다. ‘식욕억제제’란 식욕을 느끼는 뇌에 작용하여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켜 식욕을 억제하는 약이고 ‘지방분해

효소 억제제'는 음식물로 섭취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차단하여 섭취된 지방이 체내 흡수되는 것을 줄이고 밖으로 배설되게 하는 약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한 식욕억제제 성분 중 엽산펜터민, 주석산펜디메트라진, 엽산디에칠프로피온은 의존성과 내성이 발생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복용할 때에는 복용기간은 4주 이내로 하며, 4주 이내 만족할 만한 체중감량을 얻었을 경우에만 치료를 지속하나, 3개월 이상 복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복용량 또한 의사의 복용 지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다른 식욕억제제, 우울증치료제, 술과는 같이 먹어서는 안 된다. 또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혈압상승, 가슴통증·불안, 불면 등이, 과량 복용 시에는 의식을 잃거나 혼란, 환각, 불안, 심한 경우 사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살 빼는 약, 바로 알고 복용하세요

### ‘공부 잘하는 약’은 집중력이 좋아지는 약이 아니라 질병의 치료제입니다.

일부 수험생들 사이에서 잠을 쫓고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해서 오남용되고 있는 소위 ‘공부 잘하는 약’. 이 약의 주성분은 ‘엽산메칠페니데이트’이며, 주의력이 결핍되어 지나치게 산만하게 행동하는 증상(ADHD), 우울성신경증, 수면발작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신경과민증과 불면증이며 이 외 과민증(피부발진, 두드러기, 발열, 관절통, 박탈성 피부염 등), 식욕부진, 구역, 어지러움, 두근거림, 두통, 졸음, 혈압 및 맥박의 상승 및 감소, 빈맥, 협심증, 복통 등이 나타나며 정신과적인 부작용으로는 정신

적 의존성, 심혈관계 부작용, 돌연사, 행동장애 및 사고장애, 새로운 정신병 또는 조증의 발생, 공격적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다.

### ‘몸짱 약’은 근육강화제가 아니에요!

‘몸짱 열풍’ 속에서 ‘몸짱 약’은 올해도 운동선수, 연예인은 물론 10대 청소년에게까지 유행할 전망이다. 그런데 ‘몸짱 약’이라고 알려진 약은 ‘단백동화 스테로이드’가 주성분으로 남성의 성기능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이다. 이 약물은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켜서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가져오는 작용을 갖고 있으며,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따라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헬스장·인터넷 쇼핑몰 등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구매하거나 해외 여행에서 반입한 의약품 등은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제’를 함부로 사용하면 구토, 불면증, 우울증, 간장애, 성기능 장애, 심한 경우 사망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여성은 췌장염, 월경 이상, 남성은 여성형 유방, 정소 기능 억제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사춘기 이전의 남성의 경우 골단 조기폐쇄 및 단신(short stature) 초래 가능성 있으므로 복용이 금지된다.

의약품은 양날의 칼과 같아 치료효과 이면에 늘 부작용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고 의약품을 복용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불필요하게 의약품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 건전한 풍토가 조성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 본 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간한 ‘약 제대로 알고 먹나요?’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약물(마약류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뇌** 흡입제는 뇌의 화학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뇌와 중추신경계를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다. 대마초는 해마에 손상을 주어 기억 손상이 올 수 있다. 또한 대뇌부종, 뇌출혈, 편집증과 환각을 일으킬 수 있다. 필로폰은 뇌의 미세혈관을 손상시켜 발작이 올 수 있다.

**심장** 흡입제는 정상적인 심장박동에 영향을 주어 심장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사망케 할 수도 있다. 필로폰은 다양한 심혈관문제를 야기하는데, 빠르고 불규칙한 심장박동, 혈압이 높아지고, 과도한 투여를 한다면 심장발작이 올 수 있다. 스테로이드는 심장이나 뇌로 흘러들어 가는 혈액을 감소시키며, 그 결과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이 올 수 있다.

**크게보기**

**폐** 타르는 담배와 마리화나 사용자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남용자는 흡입할 때 유독가스가 폐의 산소를 대체하여 호흡이 곤란해져 사망할 수 있으며, 폐렴이나 기관지염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간장** 스테로이드 사용은 간의 중앙이나 피가 찬 낭종을 일으킬 수 있다. 종양이나 낭종은 내부혈류를 일으켜서 간의 파열을 일으킬 수 있다.

**면역시스템** 오염된 주사기를 사용하는 약물남용자들은 HIV, B형 및 C형 간염과 다른 전염성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전세계 HIV감염자의 5~10%)

**코와 귀** 흡입제 사용자는 코와 입주위가 자주 헐고 후각기능에 문제가 생기며, 청각과 관련하여 뇌에 정보를 보내는 세포를 파괴시켜 듣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피부** 흡입제(마약류) 사용하면 얼굴빛이 노랗고 피부에 윤기가 없어진다. 스테로이드 사용은 얼굴 전체에 피부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 주사기 사용자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피부농양이 온다.

**입** 흡연은 이빨 누렇게 하고, 잇몸병을 일으킬 수 있다. 필로폰을 장기간 사용하면 이가 부식되고 빠진다.

**뼈** 흡입제는 뼈속의 골수를 손상시키고 성장호르몬의 역할을 방해하여 키가 정상적으로 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파골 세포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해 적혈구, 백혈구의 새로운 세포형성에 걸림현상이 생겨, 재생불량성 빈혈이나 백혈병 등이 생길 수 있다. 필로폰 사용은 골다공증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신장** 흡입제는 신장조직에 영향을 주어 면역계통질환에 원인을 제공한다. 엑스타시 사용자는 체온이 올라가고 진정되지 않으면 신부전증에 걸릴 수 있다.